새해 365일의 안식

(요5:9b~18)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해 365일의 안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2013년 새해는 365일 안식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근거되어서 여러분에게 보장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일 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

깁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그리고 네 문 안에 거하는 모든 객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의 이론적 근거는 하나님 당신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365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함께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재해석해주고 계시고, 그렇게 재해석하시는 퍼포먼스를 요한이 캐치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재해석의 의미를 담고 오늘 본문이 어제의 본문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 년 내내 365일 안식하면서, 나는 안식하고 내 삶은 형통하는 삶을 살아봅니다.
내 소원의 형통이 아니라, 내 계획의 형통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한번 2013년 함께 살아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지식을 한번 깨우쳐봅니다.

자, 불치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신념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미신에 인생을 걸었던 것이에요.
'물이 동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괄호로 묶여있었던 이 말은 바로 민간인들 간에 퍼져있던 민간요법이었으며 동시에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미신에 의지해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이 바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책을 읽으라는 얘깁니까?
서점에 나가서 책을 보면 전부 미신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법칙'이 맞습니까?

아침형 인간, 미신입니다, 다 미신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법칙들, 그것 내용이 자꾸자꾸 바뀌잖아요?
사례로 든 회사들이 망해버립니다, '아, 이 회사가 성공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근데 10년 뒤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또 다시 써요, 다~ 미신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복은 이 세상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영위해가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참 행복,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 견실한 실제 내용이 있는 real happiness, 진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삶의 결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지구 바깥에 있습니다.
이 인간세상 바깥에서 우리에게 수입되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이 반드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취를 해도 참 행복은 온전한 만족과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은 지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 행복을 원한다면, 이 인간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에 빠져있던 마음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삶에 휩쓸려 있을 때는 절대 행복할 수도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주어질 수도 발견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태초에 에덴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행복은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의 마음이 온통 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관심할 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돼 있을 때, 그때 행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눈 떠서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식일에 제일 처음 만난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제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창조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담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난 곳이 에덴, 기쁨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안고 삶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이론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는 데에 있고, 그 7일째 인간을 만나십니다.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몰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안식을 가지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서로서로에게 집중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이 꽃피우게 됩니다.
참 만족과 기쁨이 내 마음이 전적으로 몰입해서 마음의 전면에 한 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접촉할 때,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만날 때, 내 마음에 충족감과 기쁨과 행복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안식의 상황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활동을 하셔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도 명절 중에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인 것을 아시고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반발할 것을 아십니다.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지도자들이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서 또 시비가 붙게 됩니다.
주님은 왜 자꾸 활동을 하시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규율을 왜 자꾸 어기시고 안식일에 활동을 하실까요?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안식일 지나서 내일 고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전통, 모세에 의해 천오백 년을 지켜져 왔던 안식일 규정을 깨는 겁니까? 하루를 못 참으시고.
여기에 안식일의 재해석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의 창조가 있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당신께서 안식일에 움직이시고 활동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아버지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랑 비교해서 달랐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온통 마음이 다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나가실 때도 마음이 하나님께 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아버지께 집중되어 있지 않은 순간은 한 순간도 없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5감관이 있으셔서 보는 사람 많고, 보는 사건 많고, 들리는 말이 많아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고 온통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이 다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기본정신에 따르자면 주님께는 6일 동안이 이미 7일째 안식일을 새삼 지킬 필요가 없을 만큼 전부 마음이 아버지하나님께 다 몰입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7일 동안을 다 안식일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아버지와 하나로 붙어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는 평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말

씀하십니다.
‘평강을 주노라’라는 말씀이 어제 말한 다이렉트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일 년 365일 내내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하나님께 가서 집중되어 계시고, 아버지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행복과 평강과 영원한 참 샬롬을 품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가 아닙니다.
인간과 연합해야 되는 시간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맞추시려고 했는데,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따로 하나님께 몰입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일을 멈추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인간의 리듬에 맞춰서 6일 일하시고 7일째는 인간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쉬셨는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일주일 내내 집중하고 계시니까, 몰입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겠습니까, 힘이 달려 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 창조적 계획들을 계속 수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을 장갑삼아서 주님을 근거지 삼아서, 주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몰입되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루고 싶은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쉬시는 것은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인 것이에요.
이미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하여 재해석된 안식일의 의미이고 그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일 년 365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 년 365일 안식일이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으로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법이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5감각이 있으니까 감각으로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대상과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마음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가려고 할 때, 생각이 난다든지 마음이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보다 먼저, 그 느낌과 그 반응과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보면서,
'아, 세상일에 대해 세상의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가 죽었다!'
주님의 손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일과 사람에 대해서 손을 대는 내가 못 박혔다!'
'어디를 가고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계획하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내 발에 못이 박혔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배에 기운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 내 마음의 소원, 이루고 싶은 것이 죽었다!'
채찍에 맞아서 살갗이 다 떨어져나갔습니다.
좋아하면 마음에 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 마음도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잡아 끌려 하는 모든 것 앞에서 주님의 이 죽으심의 모습, 이마와 손과 발과 창과 채찍에 맞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보기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과 천국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은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세상 이쪽에 남아 머물고 있을 때 하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행복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은 절대로 돈 벌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불행의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도 몸이 아프기 때문도 자식 때문도 남편 때문도 아내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늙어가기 때문도 사업이 망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있는 마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있는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이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내 마음은 일 년 내내 십자가 안쪽에 머물러 있어서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과제 앞에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그 세상의 상황과 일과 과제 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족해지고 기뻐질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타이밍의 신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안 좋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맥락에서 죄가 뭡니까?
안식일과 연관 지어서 죄가 뭡니까?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몰입하므로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생기기 전에 세상일에 관여하는 것, 세상일을 머리로 생각하고 손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로 쫓아다니고 내 뱃속에 소원을 잔뜩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끌어다 붙이고… 이게 다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하는 십자가를 그냥 지나쳐서 세상의 삶으로 투입되는 것, 이게 바로 죕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동안, 십자가를 지나쳐서 안식을 무시하고 행복과 기쁨이 없는 채로 삶에 투여돼서 세상일을 잘해봄으로 기뻐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악이고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음이 머물러서 세상의 삶으로 넘어가지 않는 365일의 안식을 이루시고, 그저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세요!

기쁨과 행복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감사하시는 201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사물과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게 하셔서 안식에 머물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 행복과 기쁨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형통한 삶의 모습을 보며 감사만 하는 201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